

북한산비(北漢山碑)에 보이는 갑병(甲兵) 문제

1. 머리말

북한산비는 19세기에 한 금석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에 판독과 연구결과가 잘 소개되어 있다.¹⁾ 이 비석 자체가 신라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고 밝힌 점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학문적인 성과였다. 비문의 연구에 있어서 신라인의 인명표기가 직명·부명·인명·관등명의 순서로 적힌다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²⁾ 그 당시까지 알려진 고 신라의 금석문은 황초령비와 북한산비뿐인 점과 최근의 적성비 발견 당시에도 지명인 고두림을 인명으로 본 점 등에서 보면³⁾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었는데도 모르겠다.

북한산비는 최초로 발견되고 나서, 100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고,⁴⁾ 114년 창녕비가 발견되고 나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도되었다.⁵⁾ 1929년 마운령비가 발견되면서 북한산비 자체는 신라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인명 표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그의 시도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북한산비를 고탁본⁶⁾과 현지조사⁷⁾를 통해 판독문을 작성하겠다. 다음으로 비문 자체의 내용을 해석해 비문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 마다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문중에 나오는 갑병(甲兵)에 대해 고신라의 병제사(兵制史)의 입장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이 부분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산비(北漢山碑)의 판독

북한산비에 대한 판독은 일찍이 제시되었다.⁸⁾ 그 이후에 많은 선학들에 의해 북한산비의 판독이 시도되었다.⁹⁾ 북한산비의 비면은 파실이 심해서 1행당 전체 글자수를 잘 알 수가 없었다. 북한산비의 복원은 황초령비를 참조해 시도된 바 있다.¹⁰⁾ 이 당시에는

1) 中央大學校 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1986, 《韓國學》 34에 수록된 한 은본의 《金石過眼錄》 참조

2) 이기동,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p.385

3)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 新羅 赤城經營〉 《朝鮮學報》 93에서 처음으로 적성비에 나오는 고두림이 지명임이 밝혀졌다.

4) 內藤虎次郎, 1911, 〈新羅眞興王巡境碑考(1·2)〉 《藝文》 2~4·6(이논문은 보지 못했고, 뒤의 今西 龍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5) 今西 龍, 1933, 《新羅史研究》, pp.411~488

6) 天理大 圖書館 소장의 今西文庫中の 북한산비 탁본 사진을 이용하였다. 1992년 10월 6일 天理大도서관소장의 창녕비와 북한산비의 탁본을 조사하였다.

7) 1992년 6월 11일과 12일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진열중인 북한산비를 조사하였다.

8) 본 고에 수록된 김정희의 북한산비의 판독문 참조

9)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446

葛城末治, 1978, 《朝鮮金石攷》, pp.149~150등

견해처럼¹⁸⁾ 「적강전위국진절유공지(敵強戰爲國盡節有功之)」의 10자 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¹⁹⁾ 그러면 「재유충신정성(才有忠信精誠)」의 다음에 복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산비의 행당 글자수는 34자가 된다.

이제 비문의 판독에 들어가 보자. 그러면 제1행부터 판독해 보자. 제1행은 모두 23자이다.²⁰⁾ 「11」 번째 글자는 대(大)자로 판독한 견해도 있으나²¹⁾ 태자가 분명하다. 「19」 · 「20」 번째 글자는 자흔이 불확실하지만 황초령비, 마운령비에 근거할 때 각각 관(管), 경(境)자로 추독된다.²²⁾

제②행은 모두 34자이다. 「13」 번째 글자수는 금(今)자로 읽는 견해도 있으나²³⁾ 대부분의 판독자들은 령(令)자로 읽고 있다.²⁴⁾ 「16」 번째 글자는 지(之)자이다.²⁵⁾ 「17」 번째 글자를 덕(德)자로 판독한 견해가²⁶⁾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에 따르기도 한다. 「18」 · 「19」 번째 글자는 각각 지(知) · 지(之)자로 보이기도 하나 단정할 수가 없다. 「20」 번째 글자는 년(年)이다.

제 ③행은 모두 34자이다. 「11」 번째 글자는 기왕의 판독대로²⁷⁾ 지(之)자로 읽는다. 「15」 번째 글자는 사(祀)인지 예(祀)인지 불분명하나, 기왕의 판독처럼²⁸⁾ 사(祀)자로 읽는다. 「16」 · 「17」 번째 글자는 각각 서(西), 악(嶽)자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²⁹⁾ 고탁본 등에 근거할 때 따르기 어렵다.

제④행은 모두 34자이다. 고탁본 등에 근거할 때 「10」 번째 글자는 요(耀)자로 본다.³⁰⁾ 「11」 번째 글자는 덕(德)자다.³¹⁾ 「15」 번째 글자는 고(故)자이다.

제⑤행은 모두 34자이다. 「17」 ~ 「20」 번째 글자는 마운령비나 황초령비에 따라 각각 채(採),민(民),심(心),이(以)자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21」 · 「22」 번째 글자를 복원한 견해도³²⁾ 있으나 탁본사진³³⁾에서 각각 욕(欲)자와 노(勞)자로 읽을 수가 있다. 「23」 번째 글자는 마운령비에 따를 때 뇌()자로 복원된다. 「30」 ~ 「34」 번째 글자는 마운령에 근거할 때 각각 재(才), 초(超), 찰(察), 려(厲), 용(勇)자로 복원이 가능하다.

제⑥행은 모두 34자이다. 「1」 ~ 「10」 번째 글자는 마운령비에 근거할 때 각각 적(敵),강(強),전(戰),위(爲),국(國),진(盡),절(節),유(有),공(功),지(之)자의 복원이 가능하다. 「11」 번째 도(徒)자³⁴⁾와 복(復)자로³⁵⁾ 읽는 견해가 있어 왔으나, 자흔이나 마운령비 ·

18)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6

19) 이 부분의 글자 공간에 대해서는 1992년 6월 12일과 13일에 걸쳐서 실시한 비문의 현지 조사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고탁본(유물번호 6876, 1919년 이전 구입)의 조사에 근거하였다.

20) 갈성말치(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p.149~150에 실린 판독문은 각 행이 너무 어긋나 있다. 제 ① · ② 행은 두 자씩 위로 올라가 있고, 제③ · ⑦ · ⑧ · ⑨ · ⑩행은 모두 한 자씩 위로 올라가 있다.

21) 劉燕庭, 1992, 《海東金石苑》上, p.36

22)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참조

23) 본 고에 인용된 김정희의 북한산비 판독문 참조

24)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등

25)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

劉燕庭, 1976 《앞의 책》, p.36

26)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

27) 劉燕庭, 1976, 《앞의 책》, p.436

28)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 등

29)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古代篇, p.42

30)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31)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5등

32) 今西 龍, 1933, 《앞의 책》, pp.446

33) 今西 文庫 소장의 북한산비 탁본을 찍은 사진에 근거하였다.

34)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35)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황초령비에 따를 때 전자가 타당하다. 「14」·「15」 번째 글자는 황초령비·마운령비를 참조하고 글자 자체의 자흔으로 보면 각 상(賞)자와 작(爵)자로 읽을 수가 있다.

제⑦행은 모두 26자이다. 「12」 번째 글자는 견(見)자³⁶⁾ 또는 족(足)자로 읽는 견해가³⁷⁾ 있으나 자흔에서 보면 견(見)자가 옳을 것 같다. 「23」 번째 글자는 각(刻)자³⁸⁾ 또는 간(刊)자로 읽고 있으나 ³⁹⁾간(刊)자가 옳을 듯하다. 「25」 번째 글자는 영(詠)자⁴⁰⁾ 지(誌)자로 읽고⁴¹⁾ 있으나 영(詠)자로 읽는다.

제⑧행은 모두 34자이다. 「1」 ~ 「8」 번째 글자까지는 적성비·마운령비와 대비시킬 때 수(隨),가(駕),대(大),등(等),훼(嚙),거(居),비(杞),부(夫)자의 복원이 가능하다⁴²⁾ 「9」·「10」. 번째 글자는 기왕의 견해처럼⁴³⁾ 지(智)자와 일(一)자로 복원한 것에 따른다. 「14」 번째의 글자는 각각 대(大)자⁴⁴⁾ 또는 부(夫)자로 읽는 견해⁴⁵⁾가 있으나 후자가 옳다. 「21」 번째 글자는 령(另)자로 판독된다. 「22」 번째 글자는 마운령비에 따르면 역(力)자에 복원이 가능하다.⁴⁶⁾ 「31」 번째 글자는 嚙자의 복원이 가능하다.

제⑨행은 모두 28자이다. 「1」·「2」 번째에는 남천군주(南川軍主)의 관등명이 들어 가야 된다. 「8」 번째 글자에는 북한산비의 자체의 인명표기가 적성비식이므로⁴⁷⁾ 훼(嚙)자의 복원이 가능하다. 「3」 ~ 「7」 번째 글자에는 직명이 들어가야 되는 바, 창녕비 등을 참조할 때에 「△△(사대등(使大等))」의 복원이 가능하다.⁴⁸⁾ 「10」·「11」 번째에는 마운령비에 근거할 때 각각 비(比),지(知)자의 복원이 가능하다. 「19」 번째 글자는 말(末)자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⁴⁹⁾ 이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임으로 따르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모르는 글자로 본다. 「29」·「30」 번째에도 본래부터 글자가 있었다고 본 견해도 있으나⁵⁰⁾ 비문 자체 등으로 볼 때 따르기 어렵다.

제⑩행은 모두 34자이다. 「11」 번째 글자는 부(夫)자로 읽는다. 「12」 번째 글자는 천(川)자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⁵¹⁾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다. 「13」 번째 글자를 지(指)등으로 읽는 견해가⁵²⁾ 있으나 여기에서는 모르는 글자로 본다. 「29」 번째 글자는 세(世)자,⁵³⁾ 里자⁵⁴⁾, 세(世)자⁵⁵⁾등으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세(世)자로 읽는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36)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등
 37)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38)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39)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40)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41)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42) 金昌鎬, 1983, 〈新羅 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Ⅰ)〉 《大丘史學》 22, p.23
 43)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50
 44) 본 고에 인용에 김정희의 북한산비 관독문 참조
 45)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46) 이 부분은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男力智迺干의 인명 표기 일부이다.
 47) 고신라 금석문의 인명표기의 대부분은 이 방식으로 기재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金昌鎬, 1983 〈앞의 논문〉 및 金昌鎬, 1985 〈端陽 赤城碑文의 구성〉 《伽倻通信》 11·12합(合), p.18 참조
 48) 金昌鎬, 1984, 《앞의 논문》, p.9
 49)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50)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51)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52)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53)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 참조. 단, 《海東金石苑》 위에서 世자로 읽었다고 적기한 점은 잘못된 점이다.
 54)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이 견해는 非里를 지명으로 불러는 상황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金昌鎬, 1983, 〈앞의 논문〉, p.28에서 이 설을 지지한게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55)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다. 「30」 번째 글자를 명(命)자로 읽는 견해와⁵⁶⁾ 원래부터 글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⁵⁷⁾ 있다. 여기에서는 명(命)자로 읽는다.

제⑪행은 모두 30자 이상으로 판단되나 그 정확한 글자의 총수를 알 수가 없다. 「14」 번째 글자는 순(巡)자로 읽는 견해⁵⁸⁾ 따른다. 「16」 번째 글자는 견(見)자로 읽는 견해⁵⁹⁾도 있으나 이는 따르기 어렵다. 「22」 번째 글자를 석(石)자로 읽는 견해⁶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따르지 않는다. 「28」·「29」·「30」 번째 글자를 기왕의 견해⁶¹⁾에 따라 방(方),대(代),명(名)자로 복원한다. 이상의 판독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명문의 내용

북한산비의 내용은 비문 자체에서 표시된 것에 따를 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진 다.⁶²⁾ 제1단락은 제①행만으로 구성되며, 비문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제2단락은 제②행부터 제⑦행까지로 비문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에 해당된다. 제3단락은 제⑧·⑨행으로 진흥왕의 수가인명(隨駕人名)이 나열되어 있다. 제4단락은 제⑩·⑪행으로 북한산비 건립 이후의 미래에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1단락에 해당되는 제①행의 앞부분에는 비의 건립 연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파실되었다.

지금까지는 북한산비의 건립 연대를 561년에서 568년 사이⁶³⁾로 또는 568년 등⁶⁴⁾으로 본 견해가 있어 왔다. 마운령비·황초령비의 인명표기를 북한산비와 비교할 때 동일인의 관등이 꼭 같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⁶⁵⁾으로 보인다. 창녕비에서는 비지부지급간(比知夫智及干)과 미지대나(未智大奈)의 인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북한산비 자체의 연대가 568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지부지급간(比知夫智及干)과 미지대나(未智大奈)의 경우 북한산비에서는 사대등(使大等)이란 직명을 갖고 있다가 마운령비에서는 대등(大等)의 직명을 갖고 있어서 북한산비의 건립연대가 568년이라도 마운령비의 건립 달인 8월이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56)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57)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49

58) 劉燕庭, 1976, 《앞의 책》, p.37

59)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50

60)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50

61) 今西 龍, 1933, 《앞의 책》, p.446

62) 비문 자체의 외형에 의해 단락이 나누어짐에 대해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63) 이병수(李丙수), 1976, 〈진흥대왕(眞興大王)의 위업(偉業)〉 《한국고대사(韓國古代史)》 pp.679~682

64) 葛城末治, 1978, 《앞의 책》, p.151. 여기에서는 비문의 南川軍主를 《三國史記》眞興王 29年條의 「冬十月廢北漢山州」란 구절에 근거해 비의 건립연대를 568년 10월 이후로 보았다. 이는 일찍이 나온 추사의 견해〈金正熹, 1934, 〈眞興二碑攷〉《阮堂先生全集》1〉와 유사하다.

65) 金昌鎬, 1983, 〈新羅 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I)〉《大丘史學》22, p.28 참조. 단 여기에서 필자는 마운령비와 북한산비에 동일한 지명인 「非里」가 나온 점에 근거해 북한산비의 연대를 568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바 있으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한다.

⑪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	△	(隨)	△	(敵)	△	△	△	△	△	1
△	△	△	(駕)	△	(強)	△	△	△	△	△	2
△	△	△	(大)	△	(戰)	△	△	△	△	△	3
△	△	△	(等)	△	(爲)	△	△	△	△	△	4
△	△	(使)	(喙)	△	(國)	△	△	△	△	△	5
△	△	(大)	(居)	△	(盡)	△	△	△	△	△	6
△	△	(等)	(杞)	△	(節)	△	△	△	△	△	7
△	△	(喙)	(夫)	△	(有)	△	△	△	△	△	8
△	△	△	(智)	△	(功)	△	△	△	△	眞	9
△	△	△	(一)	△	(之)	△	耀	△	△	典	10
△	夫	夫	尺	△	徒	是	德	之	言	太	11
△	△	智	干	見	可	巡	不	所	△	王	12
△	△	及	內	道	加	狩	用	用	令	及	13
巡	△	干	夫	人	(賞)	節	兵	高	甲	衆	14
守	空	夫	智	△	(爵)	境	故	祀	兵	臣	15
△	幽	智	一	居	物	訪	△	△	之	等	16
△	則	大	尺	石	以	(採)	△	△	德	巡	17
△	△	奈	干	窟	△	(民)	△	△	△	狩	18
△	△	△	沙	△	△	(心)	△	△	△	(管)	19
△	△	△	喙	△	心	(以)	△	△	年	(境)	20
刊	△	△	另	△	引	欲	強	如	△	之	21
△	△	奈	(力)	△	登	勞	建	相	△	時	22
△	劫	沙	智	刻	△	費	文	戰	△	記	23
△	初	喙	通	石	衆	如	大	之	霸		24
歲	立	屈	干	詠	路	有	得	時	主		25
記	所	丁	南	詩	過	忠	人	新	設		26
我	造	次	川		△	信	民	羅	△		27
万	非	奈	軍		城	精	△	太	賞		28
代	世		主		陟	誠	△	王	施		29
名	命		沙		△	(才)	△	△	△		30
(△)	△		(喙)		△	(超)	△	△	△		31
(△)	△		△		△	(察)	△	△	△		32
(△)	△		△		△	(厲)	△	△	△		33
(△)	△		△		△	(勇)	△	△	△		34

제2단락은 비문 자체에 파실이 심하여 대체적인 내용도 알기가 어려워 상당한 모험이 따르지만 가능한대로 비문의 내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 단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②행의 「……영갑병지덕(令甲兵之德) ……패주설△상시(覇主設△賞施)……」란 구절이다. 이는 갑병(甲兵)의 덕(德)에 패주(覇主)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신라 중고의 병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장을 달리하여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제③행의 「소용고사(所用高祀)……」의 부분도 북한산 비봉등에서의 제사(祭祀)와 관련된 의식을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⁶⁶⁾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살우(殺牛)」의식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제③행과 제④행의 「……상전지시신라태왕(相戰之時新羅太王)……요덕불용병고(耀德不用兵故)……강건문인득인민(強健文人得人民)……」은 ‘상전지시(相戰之時)에 신라태왕(新羅太王)은 ……했다.(신라태왕(新羅太王)의) 덕은 빛나고 兵(군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건문대득(強健文大得)했고, 인민(人民)이 ……했다’로 해석된다. 제⑤행과 제⑥행의 「시순수관경방채민심 이욕뇌여유충신정성재초찰려용적강전위국진절유공지 도가가상작물이(是巡狩管境訪採民心 以欲賚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敵強戰爲國盡節有功之徒可加賞罰物以)……」의 부분은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도 나오는 상투적인 문구로 그 대의는 순수관경(巡狩管境)하여 민심(民心)을 방채(訪採)하여, 충신(忠信)하고 정성(精誠)하고 재초(才超)하고 찰려(察厲)하고 용적(勇敵)하고 강전(強戰)하고, 위국진절유공지도(爲國盡節有功之徒)에게 상벌(賞罰)을 가(可)하고자 한다 는 뜻이다. 제⑦행의 「……견도인△거석굴……각석영사(見道人△居石窟……刻石詠辭)」은 도인(道人)⁶⁷⁾(승려)을 보니 석굴(石窟)에 살고 있었다. 돌을 깎아서 사(辭)를 영(詠)한다 로 해석된다.

제3단락은 인명 표기인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⁶⁸⁾ 여기에서는 이를 분석한 <표 1>의 제시로 대신하고자 한다.

66) 이 제사 부분은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후고를 기다린다.

67) 道人에 대해서는 辛種遠,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敎와 韓日關係> 《韓國史研究》 59참조,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 나오는 두명의 沙門道人인 法藏·慧忍이 북한산비에 나오는 道인과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1992년 8월 20일 북한산 비봉의 현지 조사를 하였다. 지금 서 있는 비는 1972년 8월 16일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건하고 나서 세운 모조품이다. 왜 북한산의 비봉에 비를 진흥왕이 세웠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서 현지에 가 본 결과 한강 유역이 잘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고 북쪽 지역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곧 북한산비는 한강 유역의 확보라는 자신감을 갖고 세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비봉 근처에서 石窟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 藥師殿을 주목하고 혼자서 현지 조사에 의의를 찾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음을 한 불교자 연구자의 교시로 알게 되었다.(李弘植,1959, <僧伽寺 雜考> 《鄉土서울》 6)

68) 金昌鎬,1984, <앞의 논문> ,p.9

<표 1> 북한산비(北漢山碑)의 수가인명(隨駕人名)

직명(職名)	부명(部名)	인명(人名)	관등명(官等名)
대등(大等)	훼(喙)	거비부(居杞夫)	일척간(一尺干)
"	"	내부지(內夫智)	일척간(一尺干)
"	사훼(沙喙)	령(역)지(另(力)智)	迺干
남천군주(南川軍主)	사훼(沙喙)	△△△	△△
△△(사대등(使大等))	훼(喙)	비지(比知)부지(夫智)	급간(及干)
"	"	미지(未智)	대나(大奈)
"	"	△△△	나(奈)
"	사훼(沙喙)	굴정차(屈丁次)	나(奈)

제4단락은 제⑩·⑪행으로 북한산비 건립 이후의 미래에 대해 적혀 있었다고 추측될 뿐 너무도 파실이 심해져 그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도 없다.

4. 갑병(甲兵) 문제

북한산비에 있어서 제②행의 「...영갑병지덕(令甲兵之德) ...패주설△상시(覇主設△賞施)…」와 제④행의 「...요덕불용병고(耀德不用兵故) ...강건문인득인민(強健文人得人民)…」이란 구절 볼 때 신라 중고의 군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갑병(甲兵)이란 말의 뜻이 문제이다. 북한산비의 갑병(甲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라의 병제(兵制) 연구자들이 전혀 주목한 바 없다⁶⁹⁾ 갑병(甲兵)이란 말은 북한산비와는 관계가 없이 신라의 사병(私兵) 연구와 함께 문헌에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만 검토된 적이 있다.⁷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우선 관계 구절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재상가부절록 노동삼천인 갑병우마저칭지 축목해중산 수식내사 식곡미어인 상불만 용위노비(宰相家不節錄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

위의 기사는 대체로 신라 하대(下代)에 관한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갑병(甲兵)에 대해서는 무장한 군대 곧 사병(私兵)으로 해석한 견해와⁷¹⁾ 무기(武器)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⁷²⁾ 노동삼천인(奴僮三千人), 갑병(甲兵), 우(牛), 마(馬), 저(猪)는 재상가(宰相家)인 당시 중앙의 대귀족의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갑병(甲兵)을 무기로 해석한 것은 노동삼천인(奴僮三千人)을 사병(私兵)으로 보기 위해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⁷³⁾ 갑병(甲兵) 자체가 무기로만 단정할 수가 없음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분명하다.

69) 지금까지의 신라 병제 연구자들도 북한산비의 甲兵 존재를 전부 간과하고 있다.

70) 李基白, 1957,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9,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에 재수록 위의 저자 결론은 영천정제비 등을 포함해 다소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 李泳鎬 1990, 《新羅 惠恭王代 政變의 새로운 解釋》 《歷史教育論集》 14.15합에서는 통일 신라 정치사의 큰 줄기에 있어서 위의 저술에 대한 반론이 나온 바 있다. 필자가 갖고 있는 소박한 고대사의 지식으로는 李泳鎬의 비판이 보다 설득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71)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p.438. 이 견해에 대한 요약은 李基白, 1974, 《알의 책》, p.256에 따랐다.

72) 李基白, 1974 《알의 책》, p.256

73) 이러한 방법에 따라 역사 논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이란 단서를 달고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 추측의 방법은 그 확률이 낮이므로 한 논문에서 1번 정도 쓰면 1/16이 되어 그 결론은 10%의 설득력도 없게 된다.

기문자갑병동어중국 선인장건자 실입군 봉술라구유둔관부오(其文字甲兵同於中國 選人壯健者 悉入軍 燧戍邏俱有屯管部伍) (《수서(隨書)》,신라전(新羅傳))

이 기록의 갑병(甲兵)을 무기로 볼 수는 없다.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 나오는 갑병(甲兵)도 무장한 군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듯하다. 더구나 북한산비에 나오는 「……영갑병지(令甲兵之) ………패주설△상시(覇主設△賞施)…」란 구절이 병갑(兵甲)은 무기라기 보다는 무장한 군대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된다.⁷⁴⁾ 북한산비에 나오는 갑병(甲兵)이 무장을 한 군대 곧 투구와 갑옷을 입은 군대를 가르킨다고 볼 때 이 시기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신라·가야 고분 가운데 동래 복천동·고령 지산동 등에서 많은 양의 갑주 자료가 출토되었다.⁷⁵⁾ 이렇게 영남의 많은 지역에서 갑주 자료가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의 고분에서는 갑주 자료가 화려한 부장품에 비해 대단히 빈약하다.⁷⁶⁾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갑주(甲冑)를 착용하고 싸우는 전사 집단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가 있다.⁷⁷⁾ 고령 지산동 고분군, 쌍책 옥전 고분군, 동래 복천동 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등에⁷⁸⁾ 많은 갑주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적중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된 토기들과 친연관계가 큰 동래 복천 고분군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복천동 10·11호분에서는 주실(主室)(11호분)과 부곽(10호분)에서 모두 갑주가 출토되었다. 10호분(부곽) 출토의 갑주는 10호분에 순장된 주피장자의 가신(家臣) 또는 가노(家奴)의 것으로 비기마용으로 원보고자는 해석하고 있다.⁷⁹⁾ 이 논리에 따르면 부곽인 10호분 출토의 마주(馬冑)나 마구류도 순장자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주피장자는 마주(馬冑)나 마구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복천동 10호분 출토의 갑주,마주,마구류 등 모두를 주피장자의 것으로 보아야 위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74) 이 부분의 정확한 해석은 글자의 과실이 심해 대단히 어렵지만 ‘用兵之德에(몇 년 만에) 패주가 되어 기준을 세워(…에게) 賞을 베풀다’로 짐작되어 甲兵을 무장한 군대로 보는 쪽이 좋을 듯하다.

75) 宋桂鉉,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참조. 현재 한국 고고학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5~6세기의 고분 연구 성과에 6세기의 신라·가야 고분을 통해 신라사·가야사를 복원하려고 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안되고 그 당시의 신라·가야로 되돌아가서 고고학 논문을 써야 한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일인학자의 논고에만 매달려서 추종하여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뒷부분에서 전개되는 논지는 필자의 단독 견해가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영남 지역의 고분 연구자들과 발굴 현장 등에서 토론등을 통해 얻은 것이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일일이 교시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선학,동학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76) 고고학에서는 유물자료를 중시하기 때문에 갑주·자료로만 볼 때 가야쪽이 신라쪽 보다 우세한 전투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신라가 가야를 정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차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77) 이 시기의 신라 적석목곽분 가운데 금관 등이 출토되는 대형분에서 갑주가 나오지 않는 점에 근거하였다.

78) 이들 유적의 갑주 자료에 대해서는 宋桂鉉,1988, 《앞의 논문》 참조. 최근에 들어와 脛甲을 피갑으로 본 견해가 나오고 있다. 申敬澈,1989,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 《釜山市史》第一卷,p.425 참조) 이 점은 복천동 11호분 출토의 예에 따를 때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천마총·황남대총·달서 34호분 등의 예에 의할 때 재고에 여지가 있는 듯하다. 먼저 이 유물의 양쪽 옆에 붙어 있는 두 개의 4각형으로 생긴 철판의 부위가 너무 좁은 점이다. 그 다음으로 이 자료의 원류가 되는 안양 효민동 진묘의 예(이 자료는 馬甲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볼 때 팔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이 유물을 脛甲으로 보고자 한다. 또 短甲을 전부 步兵用으로 보는 견해(鄭澄元·申敬澈, 1982, 《東萊福泉洞古墳群 I》.p.153. 申敬澈,1989, 〈앞의 논문〉, p.414 및 p.425등)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가령 덕흥리 고분의 행렬도(朝鮮畫報社 出版部,1985, 《高句麗壁畫古墳》圖版 60)에서 脛甲과 馬冑를 착용한 말을 탄 사람은 挂甲이 아니고 短甲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短甲은 반드시 보병용인가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필자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79) 鄭澄元·申敬澈, 1982, 《앞의 책》

북천동 11호분 출토의 금동관은 그 모양이 좀 특이하지만 신라식인 출자형계(出字形系)로 판단된다.⁸⁰⁾ 경주를 포함하여 북천동, 창녕 교동, 경산 입당동·조영동, 대구 비산동, 성주 성산동 등 신라계 금동관이 출토되는 고분의 주인공 신분이 문제이다.⁸¹⁾ 금동관이나 금관은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신분적인 접근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⁸²⁾ 그런데 냉수리비에 나오는 「칠왕등(七王等)」이란 구절에서 왕(王)자가 갈문왕(葛文王)뿐만 아니라 간지(干支)가 붙은 관등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가리키고 있어서 신라의 경위중 일벌간(一伐干), 이간(伊干), 迺干, 파진간(波珍干), 대아간(大阿干), 아간(阿干), 일길간, 일 길간(一吉干), 사간(沙干), 급간(及干)과 외위중 악간(嶽干), 술 간(述干), 고간(高干), 귀간(貴干), 선간(選干), 상 간(上干), 간(干)의 관등명을 가졌던 신분은 금관이나 금동관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신라의 적석목곽분중 금관이나 금동관을 부장한 유구에서 갑주 자료가 출토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동래 북천동 4호분에서 소형분이었지만 토기·철제 무기와 함께 삼갑판혁철 단갑(三板革綴短甲)이 출토되었으므로⁸³⁾ 경주의 소형분에서 갑주 자료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신라의 적석목곽분 155기 가운데 30여기가 발굴 조사되어 나머지의 적석목곽분 전부를 발굴해 보아도, 갑주 자료의 출현은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 보면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적석목곽분보다 작은 규모의 무덤에 갑주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남게 된다. 1973년에서 1974년까지 시행된 미추왕릉 지구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의 수많은 소형분이 발굴 조사되었고⁸⁴⁾, 1985년에 실시된 경주시 황오동과 인왕동을 지나는 월성로 일대의 하수구 공사때에도 많은 소형분들이 발굴 조사되었으나⁸⁵⁾ 이들 석관묘나 옹관묘에서 갑주 자료의 출토가 거의 없다. 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발굴 결과에 따르면 경주의 소형분에서도 대형분인 적석목곽분과 마찬가지로 갑주 자료가 출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의 가능성은 신라인 가운데 특히 경주에 거주하던 원신라인은 장법에서 갑주를 부장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4세기의 갑주가 출토

80) 북천동 11호분 출토의 금동관을 가야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반된 토기나 유물 자체의 관찰에 근거할 때 역시 신라식인 出字形系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81) 최근에 들어와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북부지역의 가야 문화란 용어를 쓰면서 고고학적인 고찰(金鐘澈, 1988, 〈北部地域 伽倻 文化의 考古學的 考察-高靈·星州·大邱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이 나온 바 있으나 현재 한국학계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와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듯하다.

82) 신라와 가야의 금관과 금동관에 대해서는 朴普鉉에 의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1987, 〈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 《嶺南考古學》 4등). 고신라의 출자형 금관중 古式(금관총등의 예)은 出字의 양끝 끝부분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 新式(천마총 등)은 出字의 양쪽 끝부분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박물관 양도영의 교시를 받았다. 또 금관과 신라 신분제에 접근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金昌鎬, 1991, 〈慶州 皇南洞 100號墳 劍塚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8, p.80 참조 申敬澈, 1989, 〈앞의 논문〉, p.432에서는 신라왕릉이 분명한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금령총에서 삼루환도대도가 매달리어 있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 황남대총, 금관총, 금령총을 신라의 왕릉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령 황남대총의 경우 북분의 夫人帶銘 端金具가 고분 부장자의 신분과 직결된다면 6C초의 蔚州 川前里 書石에 대비할 때 太王妃나 葛文王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근에 발굴한 梁山 金鳥塚에서 신라의 고분중 가장 화려한 太鑲耳飾이 나왔지만 그 고분의 크기는 대단히 적어서 신라 신분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금령총을 신라왕릉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고고학적인 성과와는 다소의 간격이 있는 듯하다.

83) 申敬澈·宋桂鉉, 1985 〈東萊 福泉洞 4號墳과 副葬遺物〉 《伽倻通信》 11·12合

84)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地方 古墳發掘調查報告》 1.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80, 《慶州地方 古墳發掘調查報告》 2.

85)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 博物館, 1990, 《慶州市 月城路古墳群》

된 정래동 고분⁸⁶⁾의 JS통은 황남동 109호 3·4곽 황오리 54호 乙棺, 인왕동 C군 1호분, 월성로10-1호등 몇몇 고분에서만 잔존하고 있을 뿐⁸⁷⁾이다. 따라서 수많은 고신라의 크고 작은 고분에서는 갑주를 부장하지 않는 장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듯하다.

신라의 고분에서는 아직까지 가야 지역의 여러 나라에 비해 갑주 자료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문헌에서나 고고학에서 신라의 軍制 복원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⁸⁸⁾ 고구려의 경우는 갑주의 실물자료가 거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악3호분, 약수리 고분 등의 벽화에서 중장기병(重裝騎兵)이나 중장보병(重裝步兵)의 존재가 인정된다.⁸⁹⁾ 백제의 경우도 갑주에 관한 실물 자료가 거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 이에 관한 의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어서⁹⁰⁾ 그 자료가 어느정도 가시권에 들게 되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年)(371년)에 고구려왕 기유(기유)(고국원왕(高國原王))을 평양성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한 기록에 있는 점에서 보면 백제군대에도 안악3호분 등의 고구려벽화에 보이는 중장한 기병이나 보병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신라의 경우도 고구려나 백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있었던 당시에 있어서 중장한 기병이나 보병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⁹¹⁾ 이에 관한 좋은 증거가 북한산비에 나오는 갑병(甲兵)이란 구절이다.

북한산비가 건립된 해인 568년 당시에 있어서 중국은 위진 남북조시대이다. 이 시기의 중국은 중장기병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⁹²⁾ 중장기병이 병농일치(兵農一致)를 기초로 하는 부병제(府兵制)의 전국적인 보급과 함께 중요한 전환을 맞는 시기는 뒷날에 당태종이 된 이세민(李世民)이 이끌던 농민군이 수의 중장기병을 무찔렀던 때부터이다.⁹³⁾ 이 때부터는 경장기병(輕裝騎兵)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7세기 후반의 신라에 있어서 통일전쟁과 함께 중국의 전투 방법과 병장기 등이 곧바로 전달되어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⁹⁴⁾ 이것들은 크게 볼 때 이와 같이 쉼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6세기의 신라에 있어서 중장의 군대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투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웠는지가 궁금하다. 신라·가야 지역의 중장기병은 창(槍)()을 가지고 적진을 돌파하는 사르마티아식으로 추정된 견해⁹⁵⁾가 있다. 이러한 창(槍) 문제와 관련한 고고

86) 崔鐘圭,1983,〈慶州九政洞 一帶 發掘調査〉《博物館新聞》131

崔鐘圭,1983 〈瓦質土器の檢討と意義〉《古代を考える》34.

87) 宋桂鉉,1988,〈앞의 논문〉P.68

88)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고신라 병제 연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89) 掘田啓一,1979,〈高句麗壁畫古墳 武器의 武裝—特이安岳3號墳 藥水里壁畫古墳 中心—《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4.

90) 申敬澈, 1989,〈伽倻의 武具와 馬具—甲冑와 鎧子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7에서 최초로 백제의 등자와 갑주 등에 대해 의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91) 최근에 昌原文化財研究所에서 발굴조사한 咸安 고분의 馬甲은 그 좋은 증거일 것이다.

92) 洋紅, 1986,《中國古兵器論叢》贈呈本,pp.94~104

93) 小林謙一, 1990,〈歩兵의 騎兵〉《古代史復元7》—古墳時代の 工藝—p.151

94) 7세기 후반의 신라병제의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李文基, 1991,《新羅 中古期 軍事組織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文學博士學位請求論文에도 산견되는 바,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은 없다. 7세기 전반 수·당의 고구려 침입, 7세기 후반의 삼국 통일 전쟁 등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 이미 획기적인 병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95) 門田誠一, 1988,〈古代伽倻의 戰士〉《考古學의 技術》—同志社大學 考古學—IV—p.513

혈택화강,1990,〈古墳文化의 鮮卑文化〉《季刊考古學》33,pp.30~33

혈택화강,1991〈五胡十六國의 考古學(下)〉《古代學評論》2,p.88

학적인 연구가 최근에 나왔다.⁹⁶⁾ 여기에 의하면 동래 복천동 10·11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 고령 지산동 45호분 1호석실, 성주 성산동 1호분, 성산동 2호분, 경주 황남동 109호 1곽, 식리총, 금령총, 호우총, 은령총 등에서 창 의 끝부분에 붙는 존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 복원한 창 의 길이는 250cm, 310cm, 380cm, 412cm~425cm로 장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⁹⁷⁾ 고신라에서 중장기병이나 중장보병의 존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⁹⁸⁾

5. 맺 음 말

지금까지 북한산비에 대해서 살펴 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산비를 선학들의 판독을 중심으로 고탁본과 현지 조사를 통해 판독문을 조사하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와의 비교 검토로 새로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하였다. 곧 비문은 모두 11행이고 제①행은 23자, 제②·③·④·⑤·⑥행은 각각 34자, 제⑦행은 26자, 제⑧행은 34자, 제⑨행은 28자, 제⑩행은 34자, 제⑪행은 30자 또는 34자로 전체 총 글자 수는 345자 내지 349자이다.

다음으로 북한산비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문 자체의 표시된 의견에 따를 때 북한산비는 키계 4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제 1단락은 제①행만으로 구성되며, 비문의

96) 崔鐘圭, 1988 <존 考> 《古代研究》 1.

門田誠一, 1988, <앞의 논문>

97) 崔鐘圭, 1988, <앞의 논문> , pp.97~101

98) 신라의 병제에 있어서 《書經》, 牧誓序에 나오는 「무왕벌차삼백만 호분삼백인」의 號墳과 같은 최선봉의 돌격대는 5세기 경에 철제갑옷이나 목재갑옷 등으로 중무장 했을 가능성이 크다. 號墳에 대해서는 金英夏교수의 교시를 받았다. 안악 3호분 행렬도의 제일 앞부분에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는 인물들이 혹시 號墳(최선봉 돌격대)에 해당될 지도 모르겠다(최근에 들어와 한국의 학계 일각에서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을 同數로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고고학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를 달리하여 필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라 병제와 대한 논의는 너무 《三國史記》, 武官條에 역메어 있다.(이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는 盧瑾錫, 1992,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韓國古代史研究》 5, pp.255~258 참조). 무관조에 대한 다양한 학술사적인 정리를 토대로 한 신라 병제의 복원은 상당한 한계성이 있는 듯하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특정 시대의 제도사적인 복원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 5~6세기 신라 고분 출토의 무기, 무구, 마구에 대한 고고학적인 성과를 무시한 문헌만의 결론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안악3호분 등의 고구려 고분에 벽화에 보이는 행렬도, 城을 공격하는 그림 등에서 당시의 전투 방법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고, 당시의 신라·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무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이 가능할 듯하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활이 발달하여 이에 수반되는 전쟁 방법의 일환으로 산성(山城)이 발달했다. 칼이 발달하여 短兵接戰하는 일본과는 전투 방법에서 이미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또 신라의 兵制 연구에 있어서 同法の 중요성을 환기해 두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마케도니아 필립포스Ⅱ세가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때 長槍密集 부대가 유명하다. 이 부대의 전투 방법이나 진법은 종래와 차이가 있었고, 전쟁사상 유명한 미국 독립 전쟁시 정규군이 영국군은 줄을 서서 싸우는 데에 대해 독립군(나중의 미국군)은 줄을 서지 않고 싸운 것이 현재 전술상으로 은폐·엄폐물을 이용해 싸우는 결과가 되어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외에도 전술상으로 중국에서의 농민군을 이끈 이세민(후에 당태종)이 수의 중장기병을 이긴 후 당대에는 중장기병 대신에 경장기병이 유행한 예 등으로 볼 때에는 진법 등에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흔히 읽는 《삼국지연의》에 諸葛亮이란 군사전문가에 의해 시연되는 八陣圖의 예 등이 소설처럼 실효가 있었는지 여부는 의문이지만 진법이나 전투 방법이 5~6세기 우리나라의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고신라의 병제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6세기 중에 일본 東國(關東 地方)에서 《日本書紀》 등의 문헌 자료와 고분 출토를 연결시킨 新納 泉의 유명한 연구가 나온 예도 있다.

wpahrd 해당되는 부분이다. 제 2단락은 제②행부터 제⑦행까지로 비문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갑병(甲兵)」·「패주(貝柱)」·「소용고사(所用高祀)」·「불용병(不用兵)」·「도인(道人)」 등의 내용이 나와 그 대체적인 뜻을 짐작할 수가 있다. 제3단락은 제⑧·⑨행으로 진흥왕의 수가인명(隨駕人名)이 나열되어 있다. 제 4단락은 제⑩·⑪행으로 북한산비 건립 이후의 미래에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그 다음으로 갑병(甲兵) 문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북한산비에 있어서 제②행의 「영갑병지덕(令甲兵之德)……패주설(霸主設)△상시(常侍)……」와 제④행의 「……요덕불용병(耀德不用兵)(고(故))……강건문인득인민(強健文人得人民)……」이란 구절로 볼 때 고신라의 병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추정된다. 여기에 나오는 갑병(甲兵)이란 구절을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인 자료 등을 통해 5~6세기 신라에 있어서 증장한 기병이나 보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